

시선

사설

도어락에 밀린 총장 선출제

최근 대학주보 홈페이지가 뜨겁다. 연일 이어지는 총장 선출제 관련 기사는 기자들조차 당황스러울 정도의 조회수와 댓글 수를 보이고 있다. 사안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이 뜨겁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기사를 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헌데 이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은 기사가 있으니, 바로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도어락 교체했다는 기사다. 어떤 이들은 댓글을 통해 ‘대학주보가 총장 선출제 관련 기사와 댓글을 숨기기 위해 도어락 기사가 더 상단에 올라오도록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신문은 그러한 행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한들 얻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도어락 교체 기사가 총장 선출제 기사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이 자신의 주거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디가 이상한가?

학생은 그간 총장 선출제 논의에 문외한이었다. 이제껏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고 관심을 가져본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총장 선임의 권한은 오롯이 법인 이사회의 몫이었다. 11월로 다가온 현 총장 임기 종료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 대표단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이 외친 구성원 참여는 만 명이 넘는 재학생에게 가닿지 않았나보다. 총장 선출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은 기숙사 도어락 교체보다 학생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신문이 무언가 쟁기는 부분이 있어 울렸다 내렸다 할 정도의 기사라면 애당초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어락 기사보다 조회수가 덜 나왔다고 탓할 대상이 잘못됐다. 구성원 참여를 통한 총장 선출제 마련을 주장하면서도 구성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였다.

총장 선출이 정치화된 타대의 사례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법인이 반길만한 상황이다. 학내 정치화를, 구성원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려한다는데, 지금이 딱 일부 관계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 아닌지 되물어 봐야 한다.

정치화를 해보자.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의 대표로서 총장을 뽑는 일이다. 그간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총장 ‘선임’에서 벗어나 이제나마 총장 ‘선출’을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현 총장 퇴임까지 세 달 남짓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평행선을 이어가는 논의에, 혹은 또 다른 어떠한 이유에 논의를 포기한다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에야 온다. 이마저도 확실할 수 없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에서 최근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데는 학생의 ‘휴먼파워’가 크게 작용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돌아왔다. 초읽기에 들어간 총장 선출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타야 할 것이다. 그 물살 속에서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회는 휴먼파워의 중심점이 되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주보는 그 과정에서 63년간 그려왔던 것처럼 사실을 전하며 함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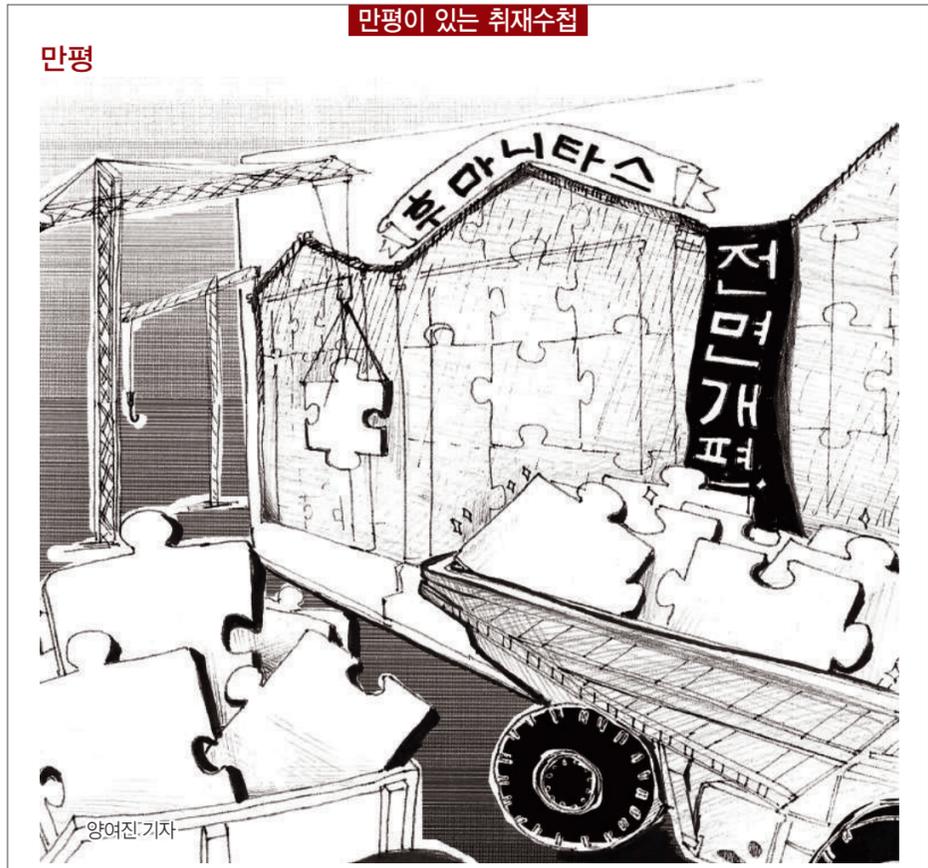
대학은 지금

학내 민주주의의 실현 목소리 커져

안나연 기자 na@khu.ac.kr

고려대 총장선출 논의가 학생과 직원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총학·직노 ‘총장선출제도 개정 참여’ 기자회견/고대신문, 2018.8.13〉**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일반대학원총학,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선출제도 개정 위원회에 법인과 노조가 배제됐음을 지적했다. 고려대 총장선출규정에 따르면 개정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이사회 의결로 총장선출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학생 대표는 “학생과 노조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참가자격이 있으나 개정위에는 빠져있다”고 말하며 개정위가 지금껏 ‘밀실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총학은 2학기에 예정된 총장 선출에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홍익대**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후마니타스칼리지 개편

현실 문제 해결해야 개편 퍼즐 완성된다



박혜진 기자
apricot12@khu.ac.kr

최근 후마는 ‘후마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 TF팀(실행위원회)’을 조직해 체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실행위원회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방식이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후마 재도약의 목표를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가장 대표적인 변경은 수강신청제도다. ‘선착순 수강신청’은 학생 불만이 많은 사항이었다. 한 과목이라도 실수하면 순식간에 전과목 수강신청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 탓이었다. 특히 모든 학생이 듣는 교양 수업은 경쟁률까지 높다. 우기동 팀장은 “다른 수강 신청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라며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큰 포부를 내비쳤다.

평가방식 개편도 학생을 위한 제도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단순 암기가 필요한 성적평가방식 대신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이해도를 평가하는 역량중심평가로 바뀐다. 학생들이 ‘학점 따기 쉬운 강의’가 아닌 ‘얻을 것이 많은 강의’를 선호하게 하는 것이 역량평가의 강점이라고 실행위원회는 설명한다.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실행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실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개편함을 알 수 있다. 실행위원회의 방향성이 확실한 만큼 개편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미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역량평가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 대학은 교육을 받는 ‘학교’임과 동시에 취업에 직결된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학점이 중요한 만큼 학점과 관련된 개편은 학생들 입장에서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필수과목 학생 수 축소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역량평가는 교수가 학생의 수업 활동 모습을 지켜보고 평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수 조정이 필수다. 강좌와 교수 수요가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결책은 뚜렷이 나와 있지 않다.

현재 시간강사 처우 논란이나 국제캠퍼스 중핵교과 객원교수들의 비정년 전임교수 전환 등 후마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해결된 부분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재도약이 수월하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 나가며 개편을 실행하다 보면 분명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번 재도약으로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만들고, 효과적인 결과를 내서 우리학교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대학 교양 교육의 기준이 되는 후마로 거듭나길 바란다.

총학생회, 총장직선제 요구... 무기한 단식 돌입/한국대학신문, 2018.8.1) 총학은 “현재의 총장 선출 방식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통해 총장후보를 추천하면 법인이 이 중 택해 선임하는 방식”이라며 “대학의 3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 의견은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총학대 총추위는 교수 20명, 교직원 9명, 학생 4명으로 구성됐다.

연세대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적 변경 시도 의혹/연세춘추, 2018.8.19〉** 지난달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대가 용역회사와 교섭 중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근로규정에 맞추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서강대에서 지난달 8일 신철 학부의 교육안에 대해 전체학생간담회가 개최됐다. **〈학제개편간담회, 생산적 논의의 장 뒀나/서강학보, 2018.8.13.〉**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10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등록금, 커리큘럼 등 세부사항 계획이 부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생이 회의의 주제로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박경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경건, 작년 부정근로 이어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또다시 도마 위로/동대신문, 2018.8.10〉** 타인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과음 때문에 당시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라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 A씨는 “술냄새가 나긴 했어도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총학)가 제안한 학생교류 서한에 김일성종합대학이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학생위)의 답신을 6.15 남북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학생위)의 답신을 6.15 남북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학생위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서울대 총학생회와 함께 손잡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당당하려면 실력을 증명하라

세시봉

이후승 <국제뉴스팀장>



“야구 국가대표팀의 은메달을 기원합니다.” 이는 지난달 18일에 막을 올린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야구 국가대표팀이 받고 있는 ‘응원’이다. 메달은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값지다. 하지만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6번의 아시안게임 중 4번의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에 보내는 응원 치고는 모순이다.

이런 이상한 응원이 가는 까닭은 바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 때문이다. 병역법 68조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한 박해민(삼성라이온즈)과 오지환(LG트윈스) 선수를 필두로 야구 국가대표팀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다. 하지만 감각과 흐름이 생명인 스포츠 선수에게 약 21개월 가량의 군 복무는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군 체육부대와 경찰청 체육단을 만들어 운동과 군 복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 체육부대와 경찰청 체육단 입대는 만 27세까지만 가능하다.

박해민과 오지환 선수는 1990년생으로 만 28세다. 즉 체육특기병으로의 입대가 불가능하며 현역 입대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노리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체육 특기병 입대 자체가 특혜인데 입대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다른 종목보다 금메달 획득이 쉬운 야구로 병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면제라는 큰 특혜를 받은 스포츠 스타들은 여럿 존재한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싸늘한 응원이 가지 않은 까닭은 바로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실력’ 때문이다. 박주영 선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주영 선수는 군 문제를 모나코 영주권 획득을 통해 미룬 사건으로 국민의 큰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보여준 유명한 골 하나로 비난을 잠재웠다.

타 종목에 비해 금메달 획득이 쉬운 아시안게임 야구지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은 험난하다. 어렵게 국가대표에 선발된 만큼 그에 맞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역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지만 다른 나라 팀은 실업팀 선수나 야구가 본업이 아닌 선수가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은 압도적인 경기력은 고사하고 실업팀 선수가 주를 이룬 대만에 패배하며 자카르타 참사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두 선수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 스포츠에서의 좋은 성적만큼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야도 드물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1등을 하는 선수들은 특혜를 받는 것이 현행법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다. 단, 혜택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줄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최명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경정 02-441-7317(미리미리)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명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21